

스타투데이 >

'100 억 파이어족'



개그맨 황현희 "투자하고 남 탕 하는 건 최악"

개그맨에서 투자 전문가로 변신한 황현희. 사진
| 스타투데이 DB

"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대신 일을 한다. 매달 돈이 들어오는 투자 구조를 만들었다."

개그맨에서 투자전문가로 변신한 황현희(43)가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100 억 자산을 모아 파이어족(경제적으로 독립한 조기 은퇴자)이 된 비결을 전수했다.

지난해 투자 에세이 '**비겁한 투자**'를 내기도 한 그는 "개그맨으로 활동하면 벌었던 돈의 10 배를 재테크로 벌었다"며 "**실력이 없어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비겁한 마음을 인정해야 돈을 벌 수 있다**"고 말한다.

그가 투자전문가로 변신하게 된 이유는 개그무대가 사라지면서였다. "개그맨을 평생 할 줄 알았고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줄 알았는데 2014 년에 나가라고, 재미없다고 하더라"며 먹고 살기 위해 재테크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었던 계기를 전했다.

황현희는 KBS 19 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KBS2 TV '개그콘서트'에서 '황현희 PD 의 소비자 고발', '불편할 진실' 등 인기코너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.

"10 년 동안 했던 일이 없어졌다. 6 개월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냈다. 얼굴만 알려진 한물 간 개그맨으로 살아야 하니까 우리끼리 고급 거지란 표현을 쓴다. 얼굴 알려져 알바도 못 한다."

고민하다 그는 자신의 통장을 들여다봤다. 머리를 스치는 생각은 "그래, 일은 소유할 수 없지만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소유할 수 있다"였다. 그때부터 황현희는 "돈을 소유해보자"고 생각하며 2 년 동안 공부만 했다.

연세대 경제대학원에 진학했고, 미시, 거시부터 통계학까지 공부했다. 주식, 부동산, 비트코인 등 투자 가치가 있다면 가리지 않고 연구했다. 투자 관련 책도 섭렵했다. 당시 읽은 책만 해도 최소 150 권.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경제 흐름 기사를 하루 100 개 정도 읽었다. **시장의 판을 읽은 그는 가장 먼저 부동산에 손을 댔다.** 황현희는 “용인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성동구 갭 투자를 시작했고 신길동 단독주택을 투자했다. 지금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그 당시에는 가능했다”고 말했다.

이후 주식 투자에도 발을 들였다. 지난해 공개된 유튜브 채널 ‘김짬부 재테크’에서 “아는 동생이 주변의 부자들을 보면 부동산을 하는 사람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금 유동성이 있어서 삶이 윤택해지는 게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”며 **“그래서 주식 공부를 시작했고,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튜브를 다 본 거 같다”**고 당시를 돌아봤다. 그는 **“2020 년 3 월 코로나 하락장을 보면서 국내 주식이 1600 선까지 가는 걸 보고 돈을 넣었다”**며 **“국내보다 미국 주식에 많이 (투자금을) 넣었고 2021 년 초 정리를 했다. 다시 또 투자 시점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”**고 말했다.

황현희는 “20 대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드 머니(투자 자금)를 모아라. 노동은 필요 없고 투자에 올인하라는 건 사기꾼이라고 본다. **노동의 가치를 느끼면서 시드 머니를 만들고 열심히 공부해라”**며 **“1 억 이상이 모인다면 과감하게 투자해라. 제게 동생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것”**이라고 조언했다.

지난 25 일 방송된 SBS ‘신발 벗고 돌싱포맨’에서 그는 **“정보 들고 투자하는 것, 투자해 놓고 남 탓하는 건 최악”**이라며 **“투자는 본인의 몫”**이라고 강조했다.

40 대 초반의 나이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찾은 그는 진정한 부자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. **“진정한 부자는 시간을 소유한 사람이다. 내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. 그걸 할 수 있는 게 경제적 자유라 생각한다.”**

1. 황현희, '개그맨→100 억 부자' 비법..."2 년 동안 '이것'만 했다"

개그맨 황현희가 투자를 통해 100 억 자산가가 된 과정을 밝혔다.

황현희는 지난 25일 방송된 SBS '신발 벗고 돌싱포맨'에 100억 자산가인 투자 전문가로 출연했다. 이날 방송에서 황현희는 현재 수입에 대해 "정확한 팩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일을 안 해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"며 "개그맨 시절 노동으로 벌었던 돈은 일을 안 해도 매달 들어오는 투자 구조를 만들었다"고 고백해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. 황현희는 투자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 "개그맨을 평생 할 줄 알았다. 재능을 인정받았고 평생 먹고 살 줄 알았는데 2014년에 나가라고,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"고 회고했다.

ADVERTISEMENT
ADVERTISEMENT

황현희는 "10년 동안 했던 일이 없어졌다. 6개월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냈다. 얼굴만 알려진 한물 간 개그맨으로 살아야 하나. 우리끼리 고급거지라는 표현을 쓴다. 얼굴 알려져 알바도 못 한다"며 "고민하다 통장을 들여다봤다.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소유할 수 있다. 일은 소유할 수 없다.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, 오늘 밤에 술 먹고 실수 한번 하면 이 방송 없어진다. 그게 현실이다"고 말했다.

그는 "돈을 소유해보자. 첫 스타트는 2년 동안 투자 안하고 공부만 했다. 대학원에 진학했다. 개론부터 배우기 시작했다. 미시, 거시부터 통계학. 공부하다 투자를 시작했다. 용인 아파트를 분양 받고 성동구 갯 투자하고 신길동 단독주택을... 지금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그 때 당시 가능했다"며 "2년간 시간을 쓰고 확신이 있었다"고 투자방법을 설명했다. 그러면서 "정보 듣고 투자하는 것, 투자해놓고 남탓하는 건 최악"이라며 "투자는 본인의 몫"이라고 강조했다.

김준호는 "사실 난 너 꿈트하는 것 같다. 돈 없지? 너 뺑치고 다니는 거지?"라며 의심했고 황현희는 "이래서 내가 예능 안 한다고 했다. 듣지를 않는다. 인간들이"라고 대응해 웃음을 자아냈다.

황현희는 "2014년 (개그콘서트) 하차 후 바로 투자하지 않았다. 2년간 투자는 안 하고 경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기초부터 배웠다"며 "용산에 아파트를 분양 받고 송도에는 갯투자를 했다. 신길에도 투자했다. 2년간 (공부하는데) 시간을 써서 그 모험에 확신이 있었다"라고 설명했다. "결국 진정한 부자는 시간을 소유한 사람"이라며 "내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. 그걸 할 수 있는 게 경제적 자유"라고 덧붙였다.

남에게 듣고 하는 투자가 최악이라고 짚었다. "'너만 알고 있어'라는 건 '너 빼고 다 알고 있다'는 것"이라고 일침했다. "투자만 할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급해진다. 100억원을 벌려면 최소 12년은 써야 한다"며 "지금은 원화를 채굴해야 한다. 시드머니를 많이 모아라. 지금은 투자를 하는 게 투자가 아니다. 난 부동산 6, 현금 3.5, 가상화폐 0.5 비율로 가지고 있다. 주식은 작년에 다 정리했다"고 설명했다.

미래에 힘들 것 같은 멤버로 개그맨 김준호를 꼽았다. 황현희는 "재무제표 볼 줄 아시냐. 회계나 이런 쪽도 다 보느냐"고 물었고, 김준호는 답하지 못했다. 황현희는 "재무제표 볼 줄 모르면 사업하지 말아야 한다. 지금부터 무조건 통계, 회계를 배워야 한다"고 조언하자,

김준호는 "아는 동생이 한다"고 했다. 황현희는 "그래서 아는 동생이 사기를 치는 것"이라며 "동생을 감시하려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한다"고 했다.
